

문여재·윤선중 교수팀, ICO서 우수 구연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은 2025 International Congress of Osteoporosis(ICO)에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간의 연결고리를 밝힌 연구로 문여재 교수와 윤선중 교수팀이 각각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여재 교수(정형외과)

연구팀은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가 근감소증에도 효

과가 있을 수 있음을 최초

로 확인하며, 승인된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 가능성을 제시 했다. 문 교수의 지도 학생인 Dr. Vinh-Lac Nguyen도 '부갑 상선호르몬의 근감소증 완화 효과' 연구 발표로 별도의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윤선중 교수(정형외과)와 채한정 교수(의생명연구원) 공 동연구팀은 BCAA이 폐경 후 모델에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완화하며, 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틴 단백질 이 근육에서도 분비됨을 규명했다.

또한, BCAA가 이 단백질을 조절해 골근감소증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혀 국제학술지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이번 성과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과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통한 개방형 연구 인프라의 국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전경



목재가공센터, 지역민 초청 목가구 체험 '호응'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가구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총 24기족, 64명이 참여 했다. 이들은 직접 나무를 다듬고 맞추는 작업을 통해 실생 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선반장을 만들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참여한 이동률 역시 강사의 도움을 받아 시포질부터 목공풀 철하기 등의 체험을 통해 목재와 친밀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센터는 지난 9월에는 전주와 군산, 남원, 장수, 무주, 순창 등 10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모두 212 명을 대상으로 편백을 이용한 무드등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정읍 산외초 학생 대상 교육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는 20일 정읍산 외초등학교에서 야생동물 생태 이해 및 관련 직업 탐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세대에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야생동물 구조·치료·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구조 후 치료가 끝난 말동가리 방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아동학대예방 주간 집중캠페인

남원시는 지난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play남원 아카데미'와 연계해,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동 친화적인 남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OX 퀴즈를 실시하고 '긍정 암울 129 원칙' 등을 홍보했다. 남원시는 이동의 권리와 존중하고 모든 아동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르신들 "태권도 해보니 건강에 도움 돼요"

서대문노인복지관·전주글로벌 시민학교, '2025년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에 초청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종현)은 국민 누구나 태권도 수련 기회를 제공받고 생애 주기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2025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이하, 희망나눔 교실)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가운데 2개의 우수 단체를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2025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를 진행 중에 있다.

우수단체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전주시 '전주글로벌시민학교'가 선정되었다. 단체별 총 20회 희망나눔 교실을 진행했고 태권도진흥재단은 현장 점검과 태권도 수련 참여 적극성, 태권도 수업 지속적 운영 의지 등을 종합해 2개 단체를 선정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힐링태권체조 체험과 공동체 활동, 태권도원 탐방 등의 일정과 함께 특히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를 위해 덕유산 등의 무주 지역 탐방 일정도 반영했다.

25일과 26일, 태권도원을 찾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20회의 태권도 교실을 운영했다. 1회와 2회차 교육에서는 도복 때 매는 법과 주먹 지르기 등 기본 동작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교육을 마무리하는 10월에는 발차기와 품새 등을 수련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노인의 날 기념 제21회 서대문은 빛 축제에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태권도 교실 참가자들은 '태극 1장'과 '손날 격파' 등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며 지역



축제에 기여하는 활약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태권도 교실에 참가한 대상자 중 설문에 응한 21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태권도 수련을 통한 신체의 긍정적 변화',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 등 '전신운동 효과', 태권도 교실의 '지속적 운영 필요', '향후 지속적 수련 참여 의사' 등의 항목에서 95% 이상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등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종현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태권도를 통한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 다문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발한 사회 활동, 청소년들의 올바른 심신 발달 등에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주=전문선 기자

부안 동진면 지사협, '새등줄기, 현등다오' 사업 실시

부안군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주거 취약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새등줄기, 현등다오'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 조명을 세대당 2~4개의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설치 및 수선 작업은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재능기부 형태로 현관·화장실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소소한 수리까지 진행했다.

최장애 공공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전등교체를 넘어 생활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적극행정의 자세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진면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줄포면 새마을부녀회·지도회, 김장나눔 봉사

부안군 줄포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회는 지난 25일 김장철을 맞아 이웃사랑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겨울철 도움의 순길이 필요한 관내 경로당 및 저소득가구 등 1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남권 줄포면장은 "추운겨울 이웃을 위해 매년 앞장서 주시는 줄포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따뜻함으로 다가갔을 것이며, 더불어 줄포면은 관내 모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나눔 행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LX공사,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해당 포상은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생협력 포상으로 꼽힌다.

LX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실증지원 △국산 측량장비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활동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LX공사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기술의 실증부터 상용화,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형 상생지원 모델'을 운영하며 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사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



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돋보이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청년 콘텐츠 창업 역량 강화

전주대, '디지털 콘텐츠 Connect & 플랫폼 Expand' 토크콘서트·플리마켓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24일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디지털 콘텐츠 Connect & 플랫폼 Expand' 토크콘서트 및 플리마켓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년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THE NEW PLAYGROUND'라는 주제로 △콘텐츠 비즈니스 융복합 사례 및 유튜브 플랫폼 활용 전략 △로컬 마케팅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2025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연계해 이론·시례·현장 판매 경험을 한 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튜브 '달수네이버' 채널을 운영하며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성진 강사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유튜브·OTT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수익모델 사례를 소개하고, 구독자 규모나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로컬 창업가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발행과 팬과의 소통이 지역 창업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FC 이도현 단장이 '스포츠 산업에서 배우는 로컬 마케팅과 플랫폼 진출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단장은 스포츠 구단이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확장하고, 'ESG&CST'를 통해 팬과의 접점을 넓혀 온 과정과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소상공인·예비창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브랜드 팬덤' 전략 사



례를 중심으로, 작은 매장·브랜드도 지역 팬층을 형성해 장기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운영된 '2025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플리마켓에서는 수료생들이 직접 기획한 제품과 브랜드를 선보이고, 온라인 판매를 염두에 둔 콘텐츠형 상품 구성과 스토리텔링, 라이브커머스 연계 전략 등을 현장에서 실현했다. 참가 소상공인들은 부스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강연에서 제시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자신의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었다.

전주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콘텐츠 Connect & 플랫폼 Expand' 토크콘서트 및 플리마켓은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전략을 고민하고, 바로 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미래교육연구원, 복지시설 방문 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정기)은 25일 전주 협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보육원 놀이터와 주제로 이동로를 중심으로 쌓인 낙엽 수거, 화단 잡초 제거, 수목 관리 작업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푸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썼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선국사서 화재 대응 총력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6일 남원시 산곡동 소재 선국사에서 산림인접지역 전통사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대원 20명을 포함한 39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소방·지휘차와 펌프차 등 6대, 산림청 고성능 산불진화차 2대 등 총 8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에서는 △전통사찰 화재 발생 가능 상황에 따른 대형 분무 방수훈련 △산림 및 사찰 주변 소방용수 활용법 △요구조수 수색 및 안전구역 확보 △지휘·통제 체계 운영 등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교월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소통 간담회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26일 관내 음식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41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 만족도를 조사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르신들이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1일 3시간, 주 3회, 월 3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관내 화단, 도로변, 공원 등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교월동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